

건교부, 건축물 시공시 내화구조 관리 대폭 강화

건설교통부는 내화구조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지난 5월 20일부터 적용했다.

내화구조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실내 거주자들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일정시간 붕괴를 막아주는 구조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는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화페인트, 석고보드 패널 등의 내화구조용 제품에 대하여 공장생산 단계에서의 품질관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이 실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과정에서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내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의 생산, 공급 및 시공에 이르는 내화구조의 공정에 따라 제조업자, 공급업자, 시공업자 및 감리자가 각각 품질관리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날인하는 「품질관리확인시스템」을 도입키로 하였다.

작성된 품질관리확인서는 최종적으로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단 건축물이 완공되면 적정 내화구조의 사용과 시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제품생산 공장과 시공현장 사이에 내화구조의 연속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일반 건축물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공단, 하수도분야 전문 사전기술검토 실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시설의 규모와 기술성,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82개의 지자체가 마련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전문기술검토결과, 과도한 개발계획에 의한 신·증설 시설규모의 과잉설계, 하수처리 인구 및 원단위의 과다산정, 하수처리구역의 부적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시정토록 지적하였다.

그 결과 2004년도에만 약 670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사전 기술검토를 통하여 지적한 주요내용을 환경부를 경유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유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수처리장 설계에 반영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기술검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를 인터넷에도 공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상하수도분야의 정책에 대한 지도·지원 방식이 계획 단계의 사전 기술검토에 한정되어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위하여 사후 검증기능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하수도정비사업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해양수산부, 60개 해역 수산물 위생등급제 실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등급이 매겨진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해역을 60개로 구분해 올해부터 매년 15개 해역에 대해 수은, 납, 카드뮴, 생균수, 대장균 등을 매달 조사하는 수산물생산해역에 대한 위생등급화 사업을 추진,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대상 품종에 대해서는 생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 조사대상 해역은 강원도 강릉연안을 비롯해 경기 화성연안, 경남 고성과 거제 연안, 전남 순천만, 전북 곰소만 등 15개 해역이다.

이들 해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2차례씩 본격적인 위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수산물 생산 안전해역, 제한해역, 금지해역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위생조사 결과 금지해역으로 판정된 지역의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안전해역

에 대해서는 대표품종 선정 등 브랜드화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과 연계한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 「산업폐수 독성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

환경부는 산업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개별 항목별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수질유해물질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생태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물고기, 물벼룩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산업폐수 독성물질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안)과 공정시험방법(안) 마련 등 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이성규 박사)에 의해 추진되며, 생태독성물질 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폐수와 독성은 다소 낮으나 방류량이 많아 생태독성 총부하량이 높은 폐·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그 동안 제도도입을 위해 3년간('02~'04)에 걸쳐 산업용 화학 및 도금시설 등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물고기, 물벼룩, 박테리아 및 조류 등 4개 시험종을 이용한 생태독성 실태조사와 선진 외국의 제도 운영실태 등을 현지조사 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국내·외 생태독성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산업체, 연구소, 민간기구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 하여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환경연구원, 한강 하구역 생태계 국내최초 정밀조사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 특이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한강, 탐진강(전남 강진군), 삼산천(전남 해남군) 등 3개 하구역에 대하여 지형, 동·식물상, 식생, 무척추동물,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

크톤 등 12개 분야에 걸친 생태계를 정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한강하구역은 하구둑이 건설되지 않고 민간의 출입이 통제되어 하구 고유의 자연 경관과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탐진강하구역은 멸종위기동물인 수달, 삿, 큰기러기, 다목장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삼산천 하구역은 상류부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나타나며 방조제 안쪽 고천암호는 가창오리를 비롯한 겨울철새의 월동지로서 이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하구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육지로부터 풍부한 영양물질이 유입되어 어류, 게, 철새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산란지, 양육지로서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동·식물상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하구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생태계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1조 2천억 투입 520개 처리장 건설

환경부는 재정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을 2010년까지 단기간내에 집중투자하여 하수도보급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소양강·대청·충주·합천·남강·안동·임하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총 28개 시·군 지역이 해당되며, 6년간 약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520개소를 신설 또는 개량하고 하수관로 329km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동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이 BOD를 기준으로 현재보다는 최소한 4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댐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최초로 「유역통합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유역단위로 하수도시

설을 일괄 정비하고, 아울러 유역내 전체 하수처리장을 온라인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번 사업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배수설비 등을 동시에 일괄 시행하여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험실·탈수시설 등 공통처리시설은 한곳으로 집약화하여 소요사업비를 약 23% 절감한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수십여 개소의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대부분 인력에 의존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한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처리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간 온라인을 구축하고, 자동제어 장치가 설치된 각각의 처리장을 중심처리장에서 무인 자동으로 원격제어 및 감시할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유지관리비를 약 12%정도 절감할수 있을 뿐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하수처리장 작동 중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따라서, 하수처리의 신뢰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수자원정책 혁신 T/F 운영

건설교통부에서는 홍수, 가뭄, 상하류간의 물 분쟁 등 점점 심각해지는 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자원개발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자원정책 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혁신팀은 홍수방지,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실시간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홍수나 가뭄을 극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위해 하천제방, 댐, 상하수도 시설 등의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결과 홍수피해가 완화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02년, '03년의 낙동강 홍수상황, 도시하천의 난개발, 상하류 주민간의 물사용을

둘러싼 분쟁 등 최근에 발생하는 물문제의 형태를 보면 기존의 건설위주 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금번 혁신 T/F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정책의 중심이 제방축조 위주의 치수정책에서 하천관리로 옮겨져야 하며, 수자원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은 물론 수문관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등 물 관리 행정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26품목 신기술·우수품질 인증

산업자문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제2차 신기술(NT마크), 우수품질(EM마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5월 13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증서수여식을 가졌다.

인증제품은 'PDP/LCD-BLU용 유리 실링재' 등 26 품목으로 국내 최초의 신기술 또는 제품 11개, 국내 최고 수준 자본재류(기계류·부품·소재) 15개가 신규로 인증 발표됨으로써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시장진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표적인 NT인증기술인 '무전해 표면처리기술'을 이용한 태양열 집열판 제조기술'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태양열 집열판용 구리강판을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확대가 예상되며,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적인 EM인증제품인 'SMD(Surface Mount Device)형 수정 디바이스 온도특성 자동검사장치'는 최근 핸드폰, 각종 통신기기의 필수부품인 수정진동자, 수정발진기 등의 소자를 온도특성에 따른 다양한 전기적 특성변화를 전자동으로 측정해 검사하는 장치로 세계 최초로 열전도방식으로 개발, 소자의 검사속도를 종전대비 6배 이상 향상시켜 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연간 6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 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에 대한 그동안 성과 분석을 토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TMS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TMS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경우 연간 전체 사업장 총배출량 696,095톤 중 89% 가량인 619,559톤[황산화물 345,058/313,437(91%), 질소산화물 316,399/290,511(92%), 먼지 34,638/15,611(45%)]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TM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총량규제 등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할수 있는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본격 시행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가 각각 제출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을 지난 5월 4일 승인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의 경계지점인 영산강본류 광산지점의 수질('05.3월 현재 BOD

8.6mg/L)을 2010년까지 5.6mg/L으로 개선하는 목표로 1일 허용배출부하량 16,197kg을 할당하고 광주 및 송대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각각 7.0mg/L 이내로 관리하는 등 1일 6,211kg의 오염물질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와의 경계지점인 섬진강본류 남원 및 요천본류 등의 수질('05. 3월 현재 BOD 1.8mg/L, 2.1mg/L)를 2010년까지 각각 1.5mg/L 으로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1일 허용배출부하량 20,244kg을 할당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축산시설 설치 등을 통해 1일 11,322kg의 오염물질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전라남도는 영산강 수계 영산포, 화순천의 수질('05.3월 현재 BOD 6.4mg/L, 2.8mg/L)을 2010년까지 각각 5.2mg/L, 2.5mg/L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1일 허용배출부하량 41,513kg을 할당하여 15,748kg을 삭감키로 하는 한편, 섬진강 수계 보성강합류 지점의 수질을 2010년까지 1.3mg/L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1일 허용배출부하량 19,482kg을 할당하고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 강화, 마을하수도 신·증설 등을 통해 1일 6,716kg의 오염물질을 삭감키로 하였다.

이번에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기본계획이 승인되므로서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더불어 3대강 전 수계가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동 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시·군은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본계획상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개선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